미얀마 민주화 지지 본격화…“평화 해결” 발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3월16일 입장문 발표해
전국비구니회·종단협 등 잇따라
미얀마 국민들, 감동의 물결 확산

미얀마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군부 쿠데타에 반발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미얀마국민들이 폭력적 진압에 희생되고 있으며, 한 달 보름이 지난 현재 1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불교계를 중심으로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을 시작으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잇따라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을 발표하며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관심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재무부장 탄하 스님, 문화부장 오심 스님, 사회부장 성공 스님, 호법부장 태원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대표낭독한 입장문에서 조계종은 “군부에 의한 미얀마 국민의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저항과 분노에 깊은 위로와 연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어 조계종은 △미얀마 국민들을 향한 군부 폭력의 즉각 중단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대한 적극지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요청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불교도들의 기도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헤인만 재한미얀마청년연대 대표가 참석해 그간 미얀마를 위해 이어진 불교계 지지 움직임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17일 비구니회관에서 미얀마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여성개발원과 샤카디타코리아와 공동으로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 등은 “이번 미얀마 사태는 한 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로, 미얀마 민주항쟁에 더욱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또 UN가입국 모두에 대해 미얀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전국비구니회와 여성불자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기도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3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와 불교여성개발원, 샤카디타코리아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법룡사와 서울지역 사찰,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평화를 발원하는 기도회를 열고 108참회기도와 대다라니 독송, 관세음보살 정근, 발원문 낭독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원행, 이하 KCRP)도 3월 18일 미얀마 민중 항쟁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KCRP는 “미얀마연방공화국은 여러 민족이 공존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을 선출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민중이 세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군부는 군사반란세력이며 미얀마 민중을 통치할 권한이나 군사행동을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얀마 군부는 세 번째 쿠데타로 또다시 민중을 살육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의 퇴보이자 반인륜적 행태로 우리 한국 종교인 모두는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종교인들은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며, 아시아는 물론 온 세상의 모든 종교인과 연대하여 미얀마 민중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3월 18일 ‘미얀마 군부는 당장 국민에 대한 살상을 중단하라’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에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종단협은 “미얀마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지의 발로로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인간다움의 길’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절규”라며 “미얀마 군부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살상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의 성불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미얀마 군부를 향해 “당장 총을 거두고 자유의지를 향한 불성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참회로서 민주화의 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한국불교계의 움직임에 미얀마 국민들의 감동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은 물론, 본국 미얀마 국민들은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진행한 미얀마 평화를 위한 오체투지 기도 영상에 미얀마어로 감사의 뜻을 남기고 있으며, 한국 불교계에서 발표하는 입장문 등을 번역해 공유하며 민주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미얀마 양곤대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최재희 씨는 “희생자 추모법회와 오체투지 기도회가 미얀마인들에게 한국의 지지를 알린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소식을 접한 미얀마 지인들이 한국불교계에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전해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 남북 불교계 뜻 모아 추진”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
3월 17일 올해 계획 공개
후원 확대로 내실 강화도

“남북관계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긴 호흡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추진과제로서, 비록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남북 불교계가 뜻을 모은다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월우 스님<사진>은 3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고착화된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추진할 사업계획들을 밝혔다. 스님은 특히 37대 집행부의 종책사업인 신계사 템플스테이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월우 스님은 “종단 내 여러 관련 기관의 협조 하에 신계사 템플스테이 준비를 위한 조직을 구성해 제반 문제점 검토를 거쳐 현지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설계도가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일정을 잡고 일을 추진하겠다”며 “금강산 신계사야말로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큰 만큼 남·북 불자들이 신계사 템플스테이에 머물며 평화와 통일을 부처님께 서원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신계사 템플스테이 진행은 남북불교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산림을 푸르게 하는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전쟁으로 소실된 북한 사찰의 복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추본은 올해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현재 경색국면인 남북관계가 해소될 경우, 즉각 논의에 착수해 체험관 착공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도 및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실무안을 구성해 놓기 위함이다. 소위원회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돼 실무조직이 재구성되기 전까지, 체험관 건립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계획을 구성하고 논의·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스님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개진해 올 6월경에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기공식 봉행을 목표로 설계도와 예산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며 “언제든 착수할 수 있도록 기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정부간 관계 악화로 인해 대북교류·협력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후원조직 확대 등 조직 내실 강화와 외연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월우 스님은 “올해는 코로나로 더욱 힘든 상황이지만 북한사찰 사진 전시회의 지역순례, 지역본부 출범, 세미나 등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후원 불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불자들의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온라인 및 영상을 활용한 불교통일교육 미디어 자료를 제작하는 등 인식교육과 캠페인 사업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경주캠 4개과 폐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서 결의…서울캠 AI학부 신설

논란이 됐던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안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주캠퍼스 한국음악과와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은 폐과하게 됐다. 서울캠퍼스가 신설하는 AI융합학부도 통과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3월 18일 고양 BMC 상영바이오관 8층 회의실에서 제335회 회의를 열고 ‘학과·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윤성이 서울캠퍼스 총장과 이영경 경주캠퍼스 총장은 학과 신설과 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에 대해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공계열이 약세인 상황에서 첨단 신기술 학과가 필요하다”며 AI융합학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장은 학령인구·대학진학률 감소를 이유로 “학과역량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한국음악과,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 이사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4개 학과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학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미흡했음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지적했다. 또한 폐과 대상 학과 학생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도록 설득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건학위원회 출범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건학위원회는 4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2월 9일 제334차 이사회서 건학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정관세칙 변경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내장사 대웅전 화재 참회 발원문

시방에 상주하시는 거룩하신 불보살님께
참담한 마음으로 엎드려 참회하고 우러러 발원하나이다.

1400년 유구한 역사의 도량을
청정하게 수호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참회합니다.

내장사 대웅전이 화마에 휩싸일 때
저희들 또한 함께 불타올랐으며
타다 남은 앙상한 서까래를 보면서
저희들의 가슴 또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저희들은
이 문제는 한 개인의 잘못일 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가 모두 그러하듯이
그 스님 또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한 사람의 허물은 전체의 허물이고
한 사람의 훌륭함은 전체의 훌륭함입니다.
존재의 실상이 일즉일체 다즉일이므로
화합과 청정한 정진은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 지향입니다.
나와 남을 별개로 분리하는 미혹한 분별심을 참회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이웃들, 국민들과 불자님들께
저희들의 허물을 머리 숙여 참회합니다.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계하여
청정과 화합을 회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저 내장사 대웅전을 태운 불길을
우리 공동체의 업장을 사르는 연비의 불꽃으로 삼고
탐진치로 지어진 중생세간을 태우는
무량광의 지혜 불꽃으로 삼겠습니다.

저희들은
온 몸을 던지는 참회 정진으로 주춧돌을 놓고
청정한 정진으로 기둥을 삼으며
자비희사 무량심으로 대들보를 얹고
온 세상을 덮는 보살행을 지붕으로 하여
보리 도량을 건립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도량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도량으로 이루어
법신 편만의 중중무진 아란야 법보리도량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심귀명,
저희들의 발원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대한불교조계종